

# 내 안에 너, 나, 우리들

— 「무진기행」 읽기 —

허관무(동국대)

## 〈목 차〉

- |  |  |
|--|--|
| 1. 다시 읽어야 할 「무진기행(霧津紀行)」 :<br>부유(浮游)하는 의문들 | 4. (半)수면 혹은 최면(催眠), 무의식적 고백<br>5. 내 안에 너, 나, 우리들 |
| 2. 무진 '여행(旅行)', 아니 무진 '기행(紀行)'             | 6. 끝나지 않을 무진기행                                   |
| 3. 무진(霧津), 사공간의 동일화                        |  |

## 1. 다시 읽어야 할 「무진기행(霧津紀行)」: 부유(浮游)하는 의문들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소제목, 그리고 연속된 대화와 서술자 '나'의 '말하기' 진술로 길게 늘어진 스물여덟 단락에 불과한 이 짧은 한 편의 소설 속에 아직도 풀리지 않고 부유하는 의문들이 남아 있다고 「무진기행」을 다시 논 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 정신분석학적 전형성(김종구, 신형철, 정창진, 차미령 등), 서술 욕망(김동현, 최갑진 등), 남(男)-성(性)의 부재(황도경), 이중 식민화론(차미령), 의미론적 차원의 재해석(김경수, 김기주 등), 성장의 의미(김혜영) 등 날카로운 분석으로 수준 높은 성취를 이루어 낸 기존의 수많은 연구자들의 힐난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여전히 존재하고 제기할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무진기행」을 둘러싼 논의

를 종결된 것으로 단정할 필요충분조건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오랜 기간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와 논쟁을 ‘충분한’ 논의와 병치시키는 일은 특정 시대와 그 시대를 넘어서는 사회역사적 보편성을 뿜어내는 문학 작품의 힘을 위축시킬 수 있다.

『무진기행』 안에는 기존 해석들을 안일하게 따라가서는 해소되지 않는 물음들과 마주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어쩌면 가장 먼저 해결될 수 있었던 기초적인 의문들이 제대로 해명되지도 못한 채 기존 논의의 바깥으로 은밀하게 유배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진기행』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무진기행』 말하기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부유하는 의문들을 『무진기행』 텍스트 중심의 공식적 담론으로 떳떳하게 귀환시키는 작업이다. 동시에 그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 그동안 이루어졌던 논의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희중은 실패로부터 도망할 때, 혹은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늘 무진을 찾아<sup>1)</sup> 거리낌 없이 공상에 빠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며 지난 과거를 생각한다. 누구도 의식하지 않으며 앞으로 행복해질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일상으로 돌아간다<sup>2)</sup>’는 이야기 구성을 전체로 보고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딘가로의, 무엇인가를 위한 여행’이라는 가벼운 해답을 내놓을 수는 없다. 또한 희중이 무진에 도착하기 전, 그리고 도착 후 밤과 낮, 3일 동안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관계를 단선적이거나 편향된 도식<sup>3)</sup>이 아니라 희중을

---

1) 신형철은 희중이 정작 자기 상실감에 빠지게 하는 곳은 서울이 아니라 무진이다. 그가 ‘서울에서의 실패’라고 부른 것이 과연 무엇인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는 무진으로 내려가는 까닭이 과연 무엇인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한다. 신형철, 『여성을 여행하지 않는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학회, 2004, 206면 참고. 따라서 이 작품은 단순한 여행 이야기는 아니다.

2) 고재원은 최면현상을 책을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비유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엎드려 팔을 피고 책을 읽으면 그 책 내용이 재미있어 팔의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무통, 무감각) 처음 그 자세(강직중)로 책의 내용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어(해리) 그들의 아픔이나 즐거움을 함께 공감한다. 그들이 겪었던 내용에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연령퇴행) 의식하지 않으면서 책장을 넘기게 된다(관념 역동적 반응). 그 주인공이 나중에 행복한 결말이 나게 되면 자신도 앞으로 행복해질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고(연령전진)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지를(시간왜곡) 깨닫게 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된다. 『무진기행』 기본 서사에는 최면현상들과 유사한 알고리즘이 있다. 고재원, 『최면유도와 치료』, 학지사, 2012, 191면 참고.

중심으로 현재와 과거, 무진과 서울 등으로 나누어 복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를 둘러싼 인물들 중 그의 흔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텍스트 안에 인물들을 ‘자아’와 ‘타자’의 만남으로 단순화시키거나, ‘자아의 내면 의식’ 등 비현실적 것으로만 끌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행의 구분 없이 진행되는 인물 간의 대화, 긴 호흡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사건 진술, 그리고 빈번한 시간 교차와 “시계와 사이렌 중 어느 것 하나가 정확하지 못했다”<sup>4)</sup>라는 익숙하지 않은 시간의 불일치 등은 이 작품의 구성이 일상적인 현실 속 ‘말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부딪히게 되는 경험을 제공하지 않고 적어 나간 또 다른 글쓰기임을 부인하긴 어렵다.

이제 부유하는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한 『무진기행』 제대로 읽기를 위해 ‘기행(문)’이라는 형식, 회중이 처한 상황 등을 통해 그가 무진으로 떠나게 되는 여행의 의미와 ‘무진’이라는 시·공간적 특징, 그리고 그 곳에서 자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무의식적인 고백을 윤희중 자신이 하고 있다는 징후들을, 그의 경험(체험)과 인물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 2. 무진 ‘여행(旅行)’, 아니 무진 ‘기행(紀行)’

“어머님의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무진에 며칠 동안 계시다 오”라는 아내의 권유를 받고 일주일 예정으로 찾는 무진은 현재 진행 중인 ‘여행’이 아니라 기억을 재구성한 ‘기행’이다.<sup>5)</sup> 회중은 무진에서 보내는 3일 동안 과거의 흔적을 재생한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3) 가령, 오디세우스 서사를 바탕으로 미친 여자, 술집 여자, 그리고 하인숙으로 이어지는 여성들에 대한 윤희중의 환상과 욕망으로 읽어낸 신형철의 접근은 매우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신형철, 앞의 논문 참고. 하지만 이런 인물 구도에 대한 편향적 접근은 작품 분량과 비교해 적지 않게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을 주변으로 밀어내게 만든다.

4) 김승옥, 『霧津紀行』, 『김승옥 전집 I』, 문학동네, 1995, 143면, 참고. 이하 본문에서 면수만 표시한다.

5) 김중구는 『무진기행』의 서술과 담론은 윤희중이 다시 서울에 도착한 이후에 누군가의 회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기행은 재구된 세계라고 주장한다. 김중구, 『무진기행』, 길의 크로노토프의 시학, 『작가세계』, 1996, p259, 참고.

과거의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였었다”는 그의 말처럼 이 글은 여행이 끝난 후 기록한 자신의 흔적들을 고백한다. 그런데 무진에서의 그는 “항상 처박혀 있는 상태였”고 “더러운 옷차림과 누우런 얼굴로” 항상 골방 안에서 뒹굴었으며 “깨어 있을 때에는 수없이 많은 시간의 대열이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비롯하며 흘러가고 있었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긴 긴 악몽들이 거꾸러져 있는 나에게 흑독한 채찍질을 하였었다”(128, 강조-인용자). 따라서 무진에서 희중은 시간의 대열 속에 서 있는 누군가와 마주치게 되며 내 안에 거꾸러져 잠들어 있는, 현재의 ‘나’와는 다른 무엇(누구)인가를 채찍질 당하듯 발견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

아내와 장인 영감은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꼭 영리한 권유를 내게 한 셈이었다. 내가 긴장을 풀어버릴 수 있는, 아니 풀어버릴 수 밖에 없는 곳을 무진으로 정해준 것은 대한히 영리한 것이었다.(131)

왜 희중은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무진으로의 아내와 장인의 권유를 긴장을 풀어버릴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영리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미 그는 자신이 무진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무진은 언제나 ‘희중’만이 향유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겪게 되는 일 등도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제한된 자신만의 공간에서 늘 볼 수 있고, 거의 유사하게 반복되는 사람들과 경험들이다.

### 3. 무진(霧津)<sup>6)</sup>, 시·공간의 동일화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 무진으로 가는 버스에서 희중의 눈에 처음 들어 온

6) 무진이 서울이라는 도시와 이분법적으로 대비되지 않는다는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다만 차미령이 밝힌 대로 텍스트 안의 모호성을 없애고 텍스트로부터 단일한 해석을 이끌어내고자 편리한 독법을 위해 김승옥의 소설을 대립항으로 읽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차미령, 『분열에 대하여-청년 김승옥과 무진(霧津)으로 떠나기 이전의 그의 소설들』, 『작가세계』, 2005, 85~86면 참고.

것은 ‘무진 Mujin 10km’라는 이정비(里程碑)였다. 한글, 영어, 숫자가 뒤섞인 이정비 표기에서 무진이라는 공간이 갖는 혼종성(混種性)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산모퉁이를 돌아감으로써 이정비를 경계로 이전과 단절된 공간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sup>7)</sup> 그런데 “그것은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가의 잡초 속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즉 옛날에도 그랬지만 무진은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다 별안간 튀어나오듯 뒤에 감추어져 있다 그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공간이다.

“무진엔 명산물이... 뭐 별로 없”다는 시찰원인 듯한 사람들의 말은 무진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속성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무진은 불명확하고 명징하지 않은 “바다도 농촌도 아닌” 공간이다. 그런 공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정체성 혼란에 노출되어 있는, 혹은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회중이 무진 읍내로 들어가면서 그 공간의 혼종성은 극을 향해 치달는다. ‘기와’와 ‘양철’, 그리고 ‘초가’가 뒤섞여 있고, 간결하고 강렬하게 마디가 끊어지는 쇠망치 소리와 지루하게 끝없이 늘어지는 유행가가 뒤섞여 있는 혼종적인 공간인 동시에, 분노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부패함과 덧난 상처를 치료하고 소독할 수 있는 크레졸 냄새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혼돈스러운 공간이다<sup>8)</sup>. 그리고 “햇볕만이 눈부시게 그 광장 위에서 끓고 있었고 그 눈부신 햇볕 속에서, 정적 속에서 개 두 마리가 혀를 빼물고 교미를 하”는 안개가 사라진 ‘무진’은 원초적 욕구로 가득 찬 공간이다.<sup>9)</sup> 또한 무진 안에서는 시간이 무화(無化)되며 공간을 동일화 시킨다.

7) 이정비(里程碑)에서 한자 ‘碑’는 ‘棺을 내리기 위하여 壙의 사방에 세운 돌이나 나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따라서 일상과 결절되는 경계의 지표로 파악 가능하다.

8) 신형철은 무진으로 향하는 회중의 여행을 치료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회중의 무진기행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아내의 권유였고 회중은 자신의 고향이 상처로 가득 찬 기억으로만 남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로 뒤덮인 그의 무진기행은 치료 과정의 시작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무진에 막 들어섰을 때 느끼게 되는 소독약 냄새 등은 얼마나 무진이라는 공간이 치유되지 않고 덧나있는 상처의 공간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신형철, 앞의 논문 참고.

9) 죽은 술집 여자를 보며 이상스레 정욕이 끊어 오름을 느끼거나, ‘회중’과 ‘인숙’의 한 낮 정사가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이유이다.

방바닥에는 비단의 방석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화투짝이 흩어져 있었다. 무진이다. 곧 입술을 태울 듯이 불타 들어가는 담배 풍초를 입에 물고 눈으로 들어오는 그 담배 연기 때문에 눈물을 찔끔거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이미 정오가 가까운 시각에야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날의 허황한 운수를 점쳐 보던 화투짝이었다.(135, 강조-인용자)

‘다리’를 건너 찾아간 친구 ‘조’의 집 안에서 희중은 화투를 발견하고 “떨리는 손가락만을 제외하곤 내 몸을 전연 느끼지 못”했던 과거의 화투짝을 내려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시간을 초월해 ‘무진’을 동일 공간화 하고 있다.

이런 특징은 경계 안에서 함께 하는 인물들에게도 나타난다. 하인숙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희중은 “무자비한 청승맞음”과 “절규를”포함하고, “광녀의 냉소를”, “시체가 썩어 가는 듯한 무진의 그 냄새가 스며있었다”고 느낀다. 무진 안의 또 다른 인물에게서도 혼종과 혼돈<sup>10)</sup>으로 가득한 ‘무진’은 변하지 않고 나타난다.

그런 무진에 명산물은 안개다. 안개는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나타나 현실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 즉 상징계를 “먼 곳으로 유배”해 버리는 “귀신이 뿜어 놓은 입김과 같”이 음화(陰化)된 “사람들의 힘으로써는” 어찌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 무진은 이렇듯 현실과 구분되는 공간으로 전제될 수 있다.<sup>11)</sup>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뚜렷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의식의 세계와 같이 초현실적인 공간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 몰입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해를, 그리고 안개를 헤쳐 버려주는 바람을 간절히 바라듯 무의식의 밖 현실을 자신의 실제라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렇듯 무진은 자아의 의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혼종과 혼돈으로 가득한, 일상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는 세계이면서 동일화된 시·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개가 걸린 햇볕이 강렬하게 비추는 거리는 텅 비어 있을 수

10) 김기주는 『무진기행』의 ‘무진’을 ‘오염’이라는 상징적 규약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라고 의미화 한다. 김기주, 『무진기행』 판독·담론 특성과 숨겨진 규약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1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5, 참고

11) 무진을 무의식의 세계로, 그곳으로 여행을 욕망과 환상의 돌이봄이라는 분석은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다. 김동현, 『김승옥 소설 『霧津紀行』에 나타난 敘述 慾望 연구』, 『어문연구』 제34권, 어문연구학회, 2006, 참고. 신형철, 앞의 논문 참고. 정창진, 앞의 논문 참고.

밖에 없고 회중이 안개와 골방 속에서의 무진을 기억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은 그들 속에서 정체되어 있거나, 불안정하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교 선생들과 사무소의 직원들도 달그락거리는 빈 도시락을 들고 축 늘어져서 지나가”는 모든 것이 장난처럼 느껴지고 “학교에 다닌다는 것,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사무소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모든 것이 실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곳이다.

#### 4. (半)수면 혹은 최면(催眠), 무의식적인 고백

무진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회중은 (半)수면상태에 빠져 있다. 의식이 완전하게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햇볕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가장 상쾌한”,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 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 되는 (半)수면상태에 있다. 그곳에서 회중은 “아무런 부끄럼없이”, “엉뚱한 생각”을 “거침없이 해”내며 의식이 아닌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시골을 생각했고 그것은 무진이었다. 문득 한적이 그리울 때도 나는 무진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럴 때의 무진은 내가 관념 속에서 그리고 있는 어느 아늑한 장소일 뿐이지 거기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 무진이라고 하면 그것에 의 연상은 아무래도 어둡던 나의 청년이었다.(129)

서울에서 ‘회중’이 떠올리는 무진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관념 속 시골, 고향일 뿐, 체험 가능성이 거세된 상상 속 이미지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 구독을 신청하고 나오는 신문 지국 안에서 그가 기대한 “안녕히 가십시오”는 나올 수 없다. 무의식의 세계를 고백하고 있는 (半)수면 상태의 공간, 무진에선 불가능하다. ‘안녕’을 말하고 듣는 순간, (半)수면 상태는 깨지고 무의식에서 의

식의 세계, 즉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한 작품 첫 장에서부터 나타나는 (半)수면은 최면현상으로 읽힐 수 있는 징후를 이후 텍스트 곳곳에서 보여준다.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마치 수많은 비단 조개 껍질을 한꺼번에 맞비빌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그 개구리 울음소리들이 나의 감각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느끼곤 했었다. 청각의 이미지가 시각의 이미지로 바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의 감각 속에서 일어나곤 했었던 것이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반짝이는 별들이라고 느낀 나의 감각은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었을까. …… 별들을 보고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했었던 것은 아니다. …… 나의 눈이 점점 정확해져가고 있는 듯이, 나의 시력에 뚜렷하게 보여 오는 것이었다 …… 옛날 나는 왜 그렇게 분해서 못 견디어 했을까.(140)

최면을 유도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거나 의존하는 감각을 활용한다. 내적 대화의 형식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경험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며 대화나 소리를 명료화하여 상상하거나 기억하고 다양한 경험과 관련된 감정을 명료하게 생각한다.<sup>12)</sup> 인숙이 “들리는 소리는 개구리 울음소리뿐”이라며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개구리 울음소리만을 듣고 있으므로 선명한 의식으로 실재를 바라보며 깨어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인숙과 헤어져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는 희중은 통금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모든 사물이 모든 사고가 그 사이렌에 흡수되어”가다, “사이렌만이 세상에 남아 있”음을, 그리고 “내 사고만이 다시 살아”남을 느낀다.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그 대화들이 내 귓속에서 내 머릿속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그리고 머릿속에서 심장 속으로 옮겨갈 때는 또 몇 개가 더 없어져 버릴 것인가. 아니 결국엔 모두 없어져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를 껴안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아니, 내 심장에 남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라는 고백을 한다. 희중의 이런 내면 고백은 최면 유도 과정이며, 거기에서 드러나는 그의 무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진을 떠나면 모든 것이 지워져

12) 고제원, 앞의 책, 94면 참고.

버리듯 최면 상태의 무의식을 벗어나면 마주할 수 없는 상상과 기억들이다. 낮잠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어둠속에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고 하지만 개구리 울음이 반짝이는 별이라 느끼듯, 감각의 바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이렌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사라진 후 하얀 옷들이 우울한 유령들처럼 자신을 흘겨보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내일 아침 걸레로 닦아 내면 될 구체적이지 못한 어느 곳에 담뱃재를 떨어내며 이미 환각과 감각만을 활용하고 있는 최면 상태의 다른 아님을 엿 보이고 있다. “시계와 사이렌 중 어느 것 하나가 정확하지 못”한 시간 왜곡이 발생되고 “모든 사고가 그 사이렌에 흡수되어”, “마침내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그 곳에서 “어디선가 부부들은 교합하리라. 아니다. 부부가 아니라 창부와 그 여자의 손님이리라.”며 자신도 알 수 없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슬며시 잠이 들었다고 스스로 이야기 하는 상황과 진술은 실제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半)수면의 무의식적 반응이다.

무진으로 들어가며 (半)수면에 빠졌기 때문에, 그 곳을 떠나오면서 의식의 회복은 이루어진다. 술에 취해 잠이 든 후 이모가 흔들어 깨워 일어난 희중은 거칠게 숨을 쉬며 자신의 호흡을 진정시키려 한다. 그리고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서 그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무진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써어 있었다. 무진에서는 불가능 했던 그 말은 (半)수면의 무의식적 공간에서 깨어나 이성과의 의식이 지배하는 일상으로 복귀하며 비로소 실현되고 있다, 아니 실현 되어야 한다.

## 5. 내 안에 너, 나, 우리들

희중은 자신을 알고 있는 듯 한 신문지국 안에 사람들이 “... 그래예? 거만하게 생겼는데...”, “... 출세했다지?...”, “... 옛날.. 폐병...”이라고 수군거림을 듣는다. 그런데 그는 정말 현재 돈 잘버는 제약회사의 전무 승진을 앞둔, 그래서 어찌면 거만하게 비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옛날에는 폐병을 앓았었다. 희중이 스스로 “내 생활의 일부로서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맡아보고 있”다고 규

정한 신문을 취급하고 있는 지국 안에서, 과거와 현재를 너무나 뚜렷하게 확  
인시켜 주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자아와 대비되는 타자의 목소리로  
이분화 시킬 수 없다. 지금 그는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일상에서 자신을  
상실한 후 찾은 무진에서 별도의 이름, 인격, 기억들을 지닌 또 다른 그와의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이다.<sup>13)</sup> 즉 신문 지국 안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지난 날부  
터 이 순간까지의 ‘나’를 보여주는 또 다른 목소리, 내 안에 너(와 나)인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그 소용돌이 밖으로 내던져졌을 때 자기들  
이 느낄 공허감”은 단순한 타자들의 공허감이 아닌, ‘나’를 규정하는 또 다른  
‘나’의 목소리로 인해 느끼게 될 ‘회중’, 자신의 공허감들이다. 이러한 인물들  
간에 보이는 밀착은 텍스트 곳곳에서 나타난다.<sup>14)</sup>

여자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다시 여자와 나란히 서서 걸었다.  
나는 갑자기 이 여자와 친해진 것 같았다. 다리가 끝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떠는 듯한 목소리로 내게 바라다주기를 청했던 바로  
그때부터 나는 그 여자가 내 생애 속에 끼어든 것을 느꼈다. 내 모든 친구들처  
럼, 이제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때로는 내가 그들을 훼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욱 많이 그들이 나를 훼손시켰던 내 모든 친구들처럼(139, 강조-인용자)

인숙이 내 생애 속으로 끼어 들 듯, 내가 그런 것보다 더욱 많이 나를 훼손  
시킨 내 모든 친구들처럼 무진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네트워크화 되어있다.  
친구 ‘조’가 “박군은 그 여자를 좋아한대”라고 회중에게 말해 주지만 그는 이  
미 후배 ‘박’이 인숙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인물에 대한

13) 리키 카터, 『다중인격 심리학』, 교양인, 2008, 14면 참고

14) 인물들 간의 밀착이나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꾸준히 이어졌다. 예를 들어 작품 속에서  
회중의 ‘어머니’, ‘이모’, ‘아내’와 ‘장인’은 이야기 주변에 위치해 있다. 어머니가 정병으로부터  
회중을 곁방 속에 감추어줬듯, 후배 ‘박’과의 원하지 않는 만남을 방 안에 감춰줌으로써 회중  
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모는 ‘무진’에서, 회중을 전무로 승진시키기  
위해 공모하는 ‘아내’와 ‘장인’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병치되어 그와 관계한다. 또 황도경은  
회중과 그의 어머니, 이모, 그리고 아내, 장인의 관계를 아버지가 부재함에 주목하며 분석하  
고 있다. 황도경, 「김승욱 소설에 나타난 남(男)-성(性)의 부재」, 『이화어문논집』, 이화어문학  
회, 1999, 참고. 이렇듯 모든 인물은 회중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씨줄과 날줄로 연결되  
어 묶여 있지만 작품 속 전체 인물들의 특징을 네트워크화 하지 못해 논의가 지엽적인 경우  
가 많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모든 인물을 의미화 해 보려 한다.

정보는 회중을 중심으로, 후배 ‘박’이 인숙에게 보낸 편지와 그녀에 대해 뒷조 사한 내용이 친구 ‘조’의 입을 통해서 회중에게, 인숙이 후배 ‘박’에게 들은 ‘회중’에 대한 물음이 회중에게, 후배 ‘박’이 친구 ‘조’와 그 직원들을 속물스럽게 생각한다는 속마음이 회중에게 전달되며 인물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sup>15)</sup>

실제로 미친 “여자의 비명이, 옛날 내가 무진의 골방 속에서 쓴 일기의 한 구절을 문득 생각나게 한 것”처럼 회중이 무진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어떤 사건을, 또는 과거와 현재의 흔적들을 떠올리게 한다.

우선 버스 안, 회중 뒷좌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농사 관계의 시찰원들인 듯했다. 아니 그렇지 않은 지도 모른다”고 했다. 신원도 신분도 정체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리고 회중이 이런 인물들과 버스라는 동일한 공간 안에서 무진이라고 하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그곳에 특산물 있고 없음에 대해 마치 이야기를 주고 받듯 동행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은 어떤 연결 고리로 묶여 있는 듯하다. “농사 관계의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관찰을 했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회중 역시 대회생계약이라는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또 “광주에서 기차를 내려서 버스로 갈아탄 이래, 나는 그들이 시골사람들답지 않게 앓은 목소리로 점잔을 빼면서 얘기하는 것” 역시 시골 출신이지만 이 순간에는 이들처럼 전무 승진을 앞둔 그래서 시골 사람스럽지 않고 목소리에 점잔을 빼야하는 그의 상황과 동일 선상에 병치된다. 따라서 시찰원인 듯 한 사람들은 제한된 공간 안에 ‘나’의 또 다른 자아로 회중의 현재이다.

오늘 이른 아침, 광주에서 기차를 내려서 역구내를 빠져 나올 때 내가 본 한 미친 여자가 그 어두운 기억들을 뺨 잡아 끌어당겨서 내 앞에 던져 주었다. 그 미친 여자는 나일론의 치마 저고리를 뺨시 있게 입고 있었고 팔에는 시골에 맞추어 고른 듯한 핸드백도 걸치고 있었다. 얼굴도 예쁜 편이고 화장이 화려했다.(129, 강조-인용자)

15) 이런 네트워크화와 정보의 공유는 회중이 무진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주인공과 보조인격, 미시인격 등으로 그의 다중 인격을 확인하게 한다. 리키 카터, 앞의 책, 55~61면 참고.

희중에게 어두운 기억들을 끌어당겨 던져 주는 이 ‘미친 여자’는, 어울리지 않게 시절에 맞춘 듯한 핸드백과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돈 많은 과부 아내의 힘으로 곧 제약회사 전무가 될,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어찌면 그에겐 어울리지 않는 지위에 오르게 되는 현재 희중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즉 이 ‘미친 여자’는 무진의 안과 밖 경계에 위치함으로써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었던 무진에서의 과거 ‘희중’과 전무 승진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어울리지 않는 현재의 희중 모두를 드러낸다.

한편, 무진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 ‘조’는 희중의 현재를 그대로 비추고 있다. 그는 희중과 무진중 동기이고, 희중이 제약회사 경리였던 것처럼 옛날 세무서 직원이었으며 이제 대회생제약회사 전무 승진을 앞둔 희중과 같이 고등고시에 패스해서 세무서장이 되어 있다.

키가 작고 살결이 검어 키가 크고 살결이 창백한 나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조’의 과거가 희중과 다른 인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 역시 친구 ‘조’가 그랬던 것처럼 무진에서 늘 부끄러움과 열등감으로 가득한 과거를 살았다.

옛날에 손금이 나쁘다고 판단 받은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손톱으로 손바닥에 좋은 손금을 파가며 열심히 일했다. 드디어 그 소년은 성공해서 잘살았다. 조는 이런 얘기에 가장 감격하는 친구였다.(133)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늘 성공을 꿈꾸며 달렸던 ‘조’는, 그와 같은 과거를 뒤로 하고 ‘제약회사 전무 승진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나’이다.

아직 결혼 전이고, 그래서 신부감을 고르며 주판알을 툭기고 있는 ‘조’의 모습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 경리 일을 보다 일자리를 잃고 ‘희’와 이별한 후 홀로 실의에 빠져 살아가던 ‘희중’과 그대로 포개진다. 희중이 아무리 비꼬아서 생각하고, 초라하게 보인다고, 가엾게 생각된다고 해도, 그리고 후배 ‘박’의 입을 빌려 속물(들)이라 경멸해 보지만 그가 말한 대로 “우리가 비난할 수 있고 적어도 평가하려고 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중과 조, 그 둘의 관계는 각각 독립된 인물의 무관한 인격이 아니라 희중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한가하지 않”은 그의 바쁜 일상을 보며 희중은 “그것은 서울에서의 나였다”고 솔직하게 고

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인숙이 색시감으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처가 편에서라도 자기를 끌어 줄 누가 있어야 한다는 ‘조’의 말만큼 현재의 ‘희중’을 명징하게 정의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둘은 “공모자”이다.

후배 ‘박’과 ‘하인숙’의, 삶과 여러 특징을 합집합으로 구성해 보면 ‘희중’의 과거를 그대로 담게 된다. 후배 ‘박’은 학생 시대에 문학 소년으로 “스스로를 모멸하고 오욕을 웃으며 견디는” 일기를 썼던 독서광 희중처럼 엄숙하고 가난하였다. 사년 전 희중이 일자리를 잃고, ‘희’와 헤어진 후 무진을 찾았을 때가 스물 아홉이었던 것처럼 지금 후배 ‘박’도 스물 아홉이고 학교(직장)에서 견디기 힘들어 하며 사랑하는 ‘하인숙’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있다.

하인숙은 희중의 친구 ‘조’가 그의 현재를 비추고 있는 것 이상으로, 과거의 ‘희중’을 재현하고 있다. 옛날 바닷가에서 병을 치료하던 시절 ‘쓸쓸하다’는 말로 자신의 삶을 정의내렸던 것처럼 그녀도 혼자 무진에 와 있다. “개성있는 얼굴”로, “얼굴 색은 노리끼리”해 병약한 느낌을 주면서도 “높은 콧날”과 “두꺼운 입술”, 그리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강한 인상을 풍기는 ‘인숙’에게서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떨쳐냈(내려 힘들어 했)던 ‘희중’을 읽어 오는 일은 어렵지 않다.

『목포의 눈물』에는 작부들이 부르는 그것에서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꺾임이 없었고, 대체로 유행가를 살려주는 목소리의 갈라짐이 없었고, 흔히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송맛음이 없었다. 그 여자의 『목포의 눈물』은 이미 유행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나비부인』 중의 아리아는 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양식의 노래였다.(137)

‘하인숙’이 부르는 노래가 뚜렷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희중’의 과거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의 노래가 불분명하게 들리는 것은 골방 속에 간혀 수음을 하던 혼돈스러운 ‘희중’의 과거임과 동시에 ‘희중’이라는 인격 속에 자아가 뚜렷한 하나로 수렴해 들어가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녀가 ‘희중’에게 더욱 밀착해 들어오는 가운데 명징해진다. “오빠라고 부를 테니까 절 서울로 데려가 주시겠어요?”, “서울로 가고 싶어 죽겠어요”라며 무진을 미치도록 떠나고 싶었던 희중의 과거를 데자뷰(déjà vu)하는 그녀가 팔을 잡자

그는 갑자기 흥분됨을 느낀다. 그리고 이 충동은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무의식의 사고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이어진다. 잠이 들기 전 어디선가 창부와 그녀의 남자의 교합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고 했던 희중은 어머니 산소를 다녀오면서 보게 된 죽은 술집여자에게서도 이상스레 정욕이 끊어오름을 느낀다. 그리고는 친구 ‘조’를 만나 대화하는 중에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을 것만 같은 인숙을 만나고 싶어 한다. 희중이 무진에 왔음을 알게 해주며 과거의 일기를 끌어당겨준 미친 여자와 방죽에서 죽은 술집여자, 인숙은 결국 화학적 결합 없이 나란히 서서 희중에게로 수렴해 들어가고 있다.<sup>16)</sup> 즉 희중에게 그의 과거와 욕망, 욕구에 가까운 충동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녀들은 ‘희중’ 안에 자리하고 있는 다중인격들이다. 이제 희중은 한때 방을 얻어 있던 집에 인숙과 동행하며 결국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다. 그런데 그 곳에서 둘의 얽힘과 풀림이 반복되며 현재와 과거의 어긋남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순수한 과거와 훼손된 현재의 어긋남이 아니다. 자신이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과거 역시 그렇지 못했음을 확인하며 이루어지는 어긋남이다.

인숙은 “어린아이처럼” 희중을 따라오고 그는 그녀와 손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다 “손바닥과 손바닥의 틈으로 희미한 바람이 새어나”감을 느낀다. 둘은 어이저려하나 차이와 결절의 틈새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서울보다는 고향이, 아니면 여기 무진에 그대로 있는게 낫다는 희중의 말에 인숙은 자신을 데리고 가지 않을 작정이라고 울상을 지으며 희중의 손을 뿌리친다. 인숙이라는 과거의 ‘희중’과 지금의 ‘나’, 현재의 ‘희중’이 어긋남이다. 그리고 과거의 ‘희중’이 현재 ‘희중’이 될 수 없으므로<sup>17)</sup> 같은 선상에 병치될 수 없다. 그렇기

16) “수면제 몇 알 먹고 떠들썩한 연극 같은 건 안”한다는 순경 말을 듣고 희중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라며 지상에서 가장 상쾌한 수면제를 만들어 팔겠다고 버스 안에서 했던 공상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수면제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게 아닐까”라며 자신이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있었던 게 이 여자의 임종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다. “통금 해제 사이렌이 불고 이 여자는 약을 먹고 그제야 나는 슬며시 잠이 들었던 것만 같다. 갑자기 나는 이 여자가 나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아픈지 하지만 아끼지 않으면 안 될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144~145)라는 희중의 (무)의식은 죽은 술집여자가 그와 독립적인 인물로 개별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정창진은 하인숙의 성씨 하(河)에 주목하면서 술집 작부는 왜 냇가에서 자살했을까라는 의문의 답을 찾아 그녀가 사이렌임을 입증한다. 정창진, 『霧津紀行』을 위하여, 혹은 無意識의 여행을 위하여, 작가세계, 1996, 393면 참고. 이와 같이 『무진기행』의 모든 인물은 고립된 개체로 의미화 되지 않는다.

17) “나는 내게서 달아나 버렸던 여자에 대한 것과는 다른 사랑을 지금의 내 아내에 대하여

때문에 희중은 “내 자신을 알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시 자신 곁에 선 인숙의 손을 잡으며 무의식의 공간 무진에서는 아직까지 과거의 ‘희중’을 저버리고 싶지 않음을 체현한다. 희중은 마치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는 “모두가 스스로를 모멸하고 오욕을 웃으며 견디는 내용들”로 가득 찬, 미칠 것만 같았던 무진의 부끄러운 기억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깨끗하게 지우려는 듯, ‘지루함’, ‘허전함’, ‘안타까움’ 등이 혼종되어 있는 ‘쓸쓸하다’는 일 년 동안 바닷가에서 ‘더러워진 폐’를 씻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그에게 ‘쓸쓸하다’는 “호소해오는 능력”도 상실해 버린 사어(死語)였고 허깨비 같은 단어였다. 그는 도시에서도 그때 바닷가에서의 심경에 공명하거나, 그것이 필요한 것이었는지 묻지만 대답은 지금도 ‘아니다’로 생각한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겠”다고 인숙의 손이 자신의 손안에서 꿈지락거리며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그녀 역시 자신과 똑같이 외로운 사람이라고 웃음 지으며 과거의 ‘희중’과 공감하려고 하지만 희중은 ‘더러워진 폐’를 씻어내고 있던 과거가 아닌, 훼손된 자신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찾아가는 집에 도착했다. 세월이 그 집과 그 집 사람들만은 피해서 지나갔던 모양이다. 주인들은 나를 옛날의 나로 대해 주었고 그러자 나는 옛날의 내가 되었다. 나는 가지고 온 선물을 내놓았고 그 집 주인 부부는 내가 들어 있던 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나는 그 방에서 여자의 조바심을, 마치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누군가 자기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찌르고 말듯한 절망을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앗듯이 그 여자의 조바심을 빼앗아 주었다. 그 여자는 처녀는 아니었다. 우리는 다시 방문을 열고 물결이 다소 거센 바다를 내어다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다.(149, 강조-인용자)

과거 골방(무진)에서 수음하던 그도 어머니로 인해-평계를 대머-정병 등을 회피했던 순수한 처녀지는 아니었다. 결국 옛날의 내가 되어 인숙의 몸을 통해 확인한 것은 ‘순수하지 않음’이었다. 단지 속물스러운 성공을 위해 서울에 가고 싶었고 아무 의미없는 행위로만 가득했던 자신과 무진만이<sup>18)</sup>, 현재

갖고 있었다”(148)는 과거와 다른 현재의 ‘희중’의 사고이다.

와 과거의 어긋남만이 극명하게 남게 된다. 둘은 그저 “인가가 보이지 않는”, “파도가 거품을 숨겨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앉아 있는 바위 밑에 그것을 뿜어 놓는 바다가의 바위 위에 앉자 코를 골며 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살맛이 나지 않았다 등의 의미없는 대화를 나눌 뿐이다.<sup>19)</sup> 이제 그 둘은 어긋나 서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한참 후 인숙은 “서울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과거의 ‘희중’과 현재의 ‘희중’의 분절과 결절의 확정이다. 비록 희중이 여자의 손을 달라고 하며 힘을 주어 보지만, “흐린 날엔 사람들은 헤어지지 말기로 하자.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끌어당겨주기로 하자.”고 다짐해 보지만 소용없다. 인숙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며 현재 ‘희중’의 가식을 꼬집고 희중 역시 ‘어떤 개인 날’의 이별을 생각하며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다.

집으로 돌아온 희중은 후배 ‘박’이 무진에 있는 동안 읽으라고 책 세 권을 두고 가며 저녁에 다시 오겠다는 얘기를 듣고도 피로를 핑계로 만나지 않는다. 그 때의 삶이 순수의 시·공간이 아님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의 ‘희중’이 과거의 흔적과 마주하려 하지 않는, 아니 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 6. 끝나지 않은 무진기행

희중은 “세상엔 착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순수함’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인숙과의 대화에서 자신과 그녀를 “불교도라고 생각”한다. 즉, 순수함의 실체와 그것의 윤희, 다시 말해 동시대적이지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적 윤리의 가능성을 되묻고 있다. 그런데 희중의 2박 3일 간 무진에서의 행동과 사고는 바로 그의 과거 경험, 그리고 숨겨져 있던 자신(아)와의 조우였고, 그것은 곧 위로와 순수함의 회복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재확인이었다.

18) “서울에 가고 싶어요, 단지 그것뿐예요.” 한참 후에 여자가 말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여자의 볼 위에 의미 없는 도화를 그리고 있었다.(149~150)

19) 무진은 여귀(女鬼)가 뿜어 놓은 입김과 같은 안개로 둘러싸인 곳이다. 그렇게 인가도 없는 곳에서 파도가 거품을 뿜어 놓고 있다. 그리고 희중은 지금 옛날의 내가 되었다고 이미 말했으므로 이 둘이 서있는 지점이 어느 곳인지 우리는 다시 환기해 볼 수 있다. 그곳은 무위로 가득 찬 순수하지 못했던 무진이며 자신의 과거이다.

모든 것이 선입관 때문이었다. 결국 아내의 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흔히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때문이라고 아내의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하여 내 마음속에서 잊혀질 수 있다고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151~152)

아내의 전보를 부정하며 그것과 오랫동안 다투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자기변명이자 기만이다. 그래서 희중은 타협안을 만들지만,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 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하고 전보의 눈을 피하여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 놓기 위해 있어 있는 힘을 다할 작정”이라고 자신을 믿어 달라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다”고 편지를 써 보지만 그것을 찢어 버릴 수밖에 없다. 희중이 무진에서 확인한 다중적인 자아의 인격들을 현재의 ‘나’로 인정하고 일상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국어의 어색함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쫓아 버리듯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무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확인하는 과정, 다시 말해 내 안에 있었던 숨겨진 ‘나’(다중인격)를 찾아가는 과정은 한 개인이 겪고 있는 질병 현상이 아니라 시대의 보편적 현상이며 수많은 인간 군상들과 소통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시대적 아픔의 또 다른 형상이다.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적인 ‘나’라는 믿음이 망상이라고 말하며 감추어진 시대적 권위의 허상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맹목적 복종의 허무함을 꼬집는다. 『무진기행』이 동시대성과 그것을 넘어선 보편성을 갖고 끊임없이 읽혀지고 늘 새롭게 논의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고제원, 『최면유도와 치료』, 학지사, 2012.
- 김경수, 『2005년의 ‘무진기행’』, 『작가세계』, 2002.
- 김기주, 『무진기행 판독·담론 특성과 숨겨진 규약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 연구』 제1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5.
- 김동현, 『김승옥 소설 ‘霧津紀行’에 나타난 敘述 慾望 연구』, 『어문연구』 제34권, 어문연구학회 2006.
- 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 I』, 문학동네, 1995.
- 김영택, 『‘무진기행’에 관한 일 연구』,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2001.
- 김종구, 『‘무진기행’, 길의 크로노토프의 시학』, 『한국언어문학』 제4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2.
- 김혜영, 『‘무진기행’에 나타난 성장의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2000.
- 신형철, 『여성을 여행하(지 않)는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04.
- 오창은, 『1960년대 소설의 小市民的 性格 고찰』, 『어문연구』 제33권, 어문연구학회, 2005.
- 정찬진, 『‘무진기행’, 길의 크로노토프의 시학』, 『작가세계』, 1996.
- 차미령, 『분열에 대하여-청년 김승옥과 무진(霧津)으로 떠나기 이전의 그의 소설들』, 『작가세계』, 2005.
- 최갑진, 『김승옥의 ‘무진기행’ 연구』, 『동아어문논집』 5, 동아어문학회, 1995.
- 황도경, 『‘霧津紀行’을 위하여, 혹은 無意識의 여행을 위하여』, 『작가세계』, 1996.
- 리키 카터, 『다중인격 심리학』, 교양인, 2008.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무진기행』에 아직 남아 있는 문제 제기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진기행』을 둘러싼 논의가 종결된 것으로 단정할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특정 시대와 그 시대를 넘어서는 사회역사적 보편성을 뺏어내는 문학 작품의 힘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글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무진기행』 말하기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부유하는 의문들을 『무진기행』 텍스트 중심의 공식적 담론으로 떳떳하게 귀환시키는 작업이다. 동시에 그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 그동안 이루어졌던 논의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기행(문)’이라는 형식, 회중이 처한 상황 등을 통해 그가 무진으로 떠나게 되는 여행의 의미와 ‘무진’이라는 시·공간적 특징, 그리고 그 곳에서 자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무의식적인 고백을 윤희중 자신이 하고 있다는 징후들을, 그의 경험(체험)과 인물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나’를 확인하는 과정, 다시 말해 내 안에 있었던 숨겨진 ‘나’(다중인격)를 찾아가는 과정은 한 개인이 겪고 있는 질병 현상이 아니라 시대의 보편적 현상이며 수많은 인간 군상들과 소통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시대적 아픔의 또 다른 형상이다.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적인 ‘나’라는 믿음이 망상이라고 말하며 감추어진 시대적 권위의 허상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맹목적 복종의 허무함을 꼬집는다. 『무진기행』이 동시대성과 그것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갖고 끊임없이 읽혀지고 늘 새롭게 논의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제어 : 부유(浮游), 기행(紀行), 무화(無化), 시·공간의 동일화, (半)수면, 최면, 무의식, 네트워크화, 어긋남, 다중인격

【Abstracts】

## You, I, Inside of me, we

— To read 「Mujingihang」 —

Huh, kwanmoo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ower of the work which belches out a social and historic universality in a specific era or beyond the era under the precondition that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is not so far satisfied to determine the completion of the discussion around 「Mujingihang」 because there still are unsolved questions as well as still existing problem presentations. Therefore,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is an act beyond previously made speaking of 「Mujingihang」. It is above all a work of returning floating questions to a text-oriented discussion of 「Mujingihang」 honorably. At the same time, it is a process of asking how the discussions so far to look for answers to the questions were possible.

For this purpose, the form of 'Journey(essay)', the meaning of his journey to Mujin through Hijung's situation and Mujin's spatial characteristics, and the signs that he unconsciously confesses a discovery of another identity inside him are examined based on his experience(physical) and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s.

By doing so, the process of identifying 'I', in other words, the process of discovering 'I' hidden inside of me(multiple personality) is not a disease symptom a person suffers but a universal phenomenon of time, and an another shape of timely pain which is isolated from communication and

happily coexisting ways with groups of people. In addition, a belief of never changing and eternally essential 'I' is said to be an delusion, and illusions of authority and the emptiness of a blind obedience to the illusions are spoken ironically. The reason why 『Mujingihang』 is continuously read with the contemporaneity and beyond the universality and discussed always newly is here.

Key words : float(浮游), journey(紀行), nullify(無化), unification of space and time, (半) sleep, hypnosis, unconsciousness, networking, offset, multi-personality

이 논문은 2014년 1월 12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 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